

금융당국은 없다



박 승 덕 역
냉정과 열정사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주가급락 사태’가 최근 자본시장의 화두다. 지난달 24일부터 SG증권에서 특정종목의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불과 4일 만에 시가 총액 8조원이 증발했다. 8조원 가운데 아무것도 모른채 해당 주식을 샀던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수 년 간 이유없이 급등했던 종목들이다. 다올투자증권을 제외하면 유통주식 비율이 15~36%대에 머무는 주식이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대부분 이었고,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서 주가조작 수사에 대한 사전인지로 추정되는 반대매매가 한꺼번에 뿔었다. 결국 8개 종목(서울가스대성홀딩스 선광 다우데이터 삼천리 하림지주 세방 다올투자증권)이 급락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8개 종목 주가는 나흘간 42~76%나 급락했다. 연쇄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는 CFD 계좌였다.

CFD는 실제로 투자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해 차익만을 목적으로 매매해 정산이 이뤄진다. 장외파생계약으로 신종 파생상품이다. 증

권사가 레버리지(대출)를 일으켜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 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챙기는 구조다. 40%의 증거금(10만원 짜리 주식의 경우 4만원)만으로도 매수 혹은 매도 양방향의 투자가 가능하다. 약 2.5배의 레버리지가 적용된다.

SG증권발주가하락 사태의 종착지는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고도화, 지능화된 주가조작 의혹이 어디까지 밝혀지고, 누구까지 어느 정도의 벌이 주어질지 모른다. 문제는 해당종목에 투자했던 개미투자자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수 년 간 주가가 이유없이 오르고 주가조작의 그림자가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보이지 않았다. 한국거래소의 조화공시 요구 등 경고등도 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9년 CFD 거래 자격을 완화했다. 금융 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면서 CFD 거래대금은 2020년 30조9000억원에서 2021년 70조100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몇 년 전 ‘라임사태’가 다시 떠오른다. 금융당국은 펀드환매 불능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불을 끄기 급급했다.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부실 운용이 사태를 키웠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

고 펀드를 판 판매사를 다달했다. 당시 판매사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자산운용사의 운용 현황을 볼 수 없었다. 과일을 판매하는 상점이 그 과일이 어느 밭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재배되는 지, 어디에 그 과일을 파는 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썩은 사과’를 판 가게가 모든 책임을 지라며 소비자(투자자)에게 돈을 물어주게 했다.

‘라임사태’의 시작은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것이었다. 펀드공시의무도 없었다. 1억원 이상의 사모펀드 투자자를 의식한 금융당국이 판매사에 투자손실액을 돌려주라고 압박했다. 선진 자본시장에선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사모펀드는 고수익 고위험 투자다. 투자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자본시장의 룰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심판답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SG사태’와 ‘라임사태’의 공통점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보이지 않은 금융당국이다. 사모펀드나 CFD 규제완화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고, 일반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시장의 ‘파수꾼’으로 명예회복을 하려면 금융사고의 사전 인지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한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전세사기와 대책 그리고 여야합의



기지 수첩
김 대 환
(건설부동산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가 화두다. 전세사기의 피해 규모가 큰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20~30대 청년들이 잇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를 통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한 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정부가 정해놓은 특별법 적용 대상의 몇몇 요건들은 기준이 모호해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될 상황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낙찰받을 때 은행이 장기 저리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안은 빚을 진 피해자에게 또 다른 대출을 받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겠다는 방안의 경우 실제 LH가 사들일 수 있는 임차주택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땀집식 대책만 내놓는 사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임대인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강동전세’가 늘어나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8452건으로, 지난 1월(6622건) 대비 27.6%(1830건) 증가했다. 지난해 4월(5299건)과 비교해 보면 59.5%(3153건)나 늘었다.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약 3199억원으로 지난 2월(2542억원) 대비 25.8%(657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121건에서 1385건으로 23.6%(264건) 증가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두고 공방 중이다.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전날에도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여야는 특별법 제정안 통과로 피해자 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내길 희망한다. /kdh@

오늘의 운세5월 12일 (음 3월 23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도 흥한다. 48년생 돈의 유무에 따라 서비스가 차이난다. 60년생 부동산계약은 오래된 부동산에서, 72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헤아리기 어렵다. 84년생 실의에 빠지지 말자.

 소

37년생 경관은 넓고 화려하나 머물 곳이 없다. 49년생 사회적으로 정의와 책임 의식이 일어난다. 61년생 입안의 허처럼 구는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73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85년생 심신을 닦고 집안도 닦자.

 호랑이

38년생 백(魄)이 편안해야 후손도 편안해진다. 50년생 배우자가 나에게 좋은 협력자. 62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이다. 74년생 흰색이 행운을. 86년생 물과 고기의 관계처럼 뗄 수 없이 친한 친구가 감사.

 토끼

39년생 기도로 우환을 줄여보라. 51년생 사람의 귀천이 돈이나 권력에 의해 구분되는 느낌. 63년생 보험으로 노후대비를 조금씩. 75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불평 말고 차라리 가지 않으면 될 것. 87년생 인연법으로 인해 손해수.

 양

40년생 독신이 부자라면 그 재물을 지키기가 수월치 않다. 52년생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일을 중지. 64년생 직장에서 공과 사를 구별하라. 76년생 부지런하여 앞서가는 사람을 본받도록. 88년생 지난 일에 집착 말고 잊는 것이.

 뱀

41년생 불행한 가정은 말이 많아 저마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53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65년생 약속이 겹쳐지 않도록 메모하라. 77년생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얻는다. 89년생 너무 맑은 물에는 큰 고기가 살지 않는다는데.

 말

42년생 잠자기 전에 물을 떠 놓고 명상을 잠시 해보라. 54년생 말을 많이 하려면 지갑도 열려라. 66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 큰 손실. 78년생 똥사람을 도우니 성과가 온다. 90년생 공과 보리는 분명 모양이 다르니 우기지 않는 것이.

 양

43년생 어려운 일이 닥쳐도 독심으로 밀고 나가자. 55년생 함께하는 상대방을 의심하지 마라. 67년생 결과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일하라. 79년생 중간에 주변이 시끄러워 절로 입을 다문다. 91년생 조상을 숭배하고 족보에 관심을 갖자.

 원숭이

44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기회를 잘 잡자. 56년생 병은 자랑해야 빨리 낫다고 했다. 68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 80년생 아침에 주변을 청결하게. 92년생 위태롭고 험난함을 무릅쓰다보면 결과가 이르게 된다.

 닭

45년생 대기업을 그만두겠다는 자식이 기가 막혀서 우울. 57년생 시비를 가리니 내 허물이 더 크다. 69년생 눈치를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81년생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크다. 93년생 재물의 증식은 음의 영역에서 시작이 되는데.

 돼지

46년생 고독하게 치우쳐 있는 삶에는 재정이 도모되지 않는다. 58년생 부모님 생신날 효를 하자. 70년생 골치 아픈 일을 조언을 구하여 처리. 82년생 고부간 간교한 싸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94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품으라 했다.

 돼지

47년생 액운을 막아주는 풍속을 따르는 것도 지혜. 59년생 조력자가 있어서 행복. 71년생 고급관리가 되기 전초전. 83년생 금전 문제는 사람 잃고 돈을 잃으니 받을 생각 말고 줘라. 95년생 사기 수는 누구에게나 접근되니 항상 진중하게.

김상회의四季

풍수, 명당과 물

뒤쪽에 산이 있고 앞쪽에 물이 흐르는 입지라면 단번에 배산임수가 떠오른다. 마을이나 집이 들어서기에 이상적인 터가 배산임수인데 풍수로 보면 명당에 해당한다. 배산임수가 좋은 이유는 뒤에 있는 산이 생기를 불어넣고 앞쪽의 물은 산의 좋은 기운을 흠어지지 않게 모아 주기 때문이다. 풍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배산임수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인다. 배산임수가 좋은 터라는 인식은 확고하다. 그렇다면 앞쪽으로 물을 끼고 있으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좋다고 하기는 힘들다. 형태나 위치 등에 따라 물도 좋고 나쁨이 나뉜다. 개인 주택이라면 앞쪽으로 흐르는 물의 형태를 보자. 주택 앞에 작은 냇물 정도의 물이 흐른다면 좋은 풍수이다. 부드럽게 흐르는 냇물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큰 강물이 흐른다면 조금 달라진다. 물살이 강한 강물이라면 사람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물살이 강한데 강의 폭도 넓다면 재물의 손실을 불러온다고 보기도 한다. 너른 바다를 볼 수 있는 풍광 좋은 해변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풍광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바닷가와 너무 가깝다면 더 생각해야 한다.

너무 심한 습기는 건강에 나쁘게 작용하고 강한 염도는 건축물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물은 재산의 흐름을 상징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물은 편안하게 흘러야 하고 막히는 곳이 없어야 좋다. 배산임수 터는 뒤쪽의 산이 바람을 막아줘 겨울철에 따뜻하고 앞쪽에 있는 물에서 농업과 생활용수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물을 얻기 좋은 곳이 사람 살기에 좋은 터라는 의미다. 현실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은 너무 급하지 않고 천천히 흘러야 좋다. 깊은 물보다는 친근함 부드러움이 중요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8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29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물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4X3 스토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6		2
			9	2	1
		5	2		4
	2	9			4
		3	6		8
			4	7	9
	9			8	
					7

1			8		5			7
			1	7	2			
				4				
4	5						9	3
	6	9				4	8	
8	1						7	5
				8				
			3	6	1			
6			5		7			9

정답

ㄱ	6	8	2	8	9	2	9	1
2	2	9	9	8	1	ㄷ	6	8
9	8	1	6	2	ㄱ	8	9	2
6	9	2	8	1	9	8	ㄷ	2
1	9	ㄱ	8	9	2	6	2	8
8	2	ㄷ	6	2	9	1	9	
8	ㄱ	8	1	2	6	9	2	9
9	2	6	2	9	8	1	8	ㄱ
2	1	9	9	ㄱ	8	2	8	6

과·하이드의 월드컵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